

朝鮮王室 金屬祭器 研究

－ 宗廟祭器를 中心으로 －

김종임 *

- I. 머리말
- II. 조선시대 제기의 제작과 사용
- III. 제기의 양식 분석
- IV. 제기의 양식변천과 그 배경
- 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아 禮治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국가운영체계 속에서 禮는 五禮(吉禮, 嘉禮, 賓禮, 軍禮, 凶禮)로 체계화되었으며, 이 오례를 거행할 때마다 조선 왕조는 都監을 설치하고 의례에 사용할 왕실공예품을 최상의 재료와 최고의 숙련된 장인을 동원하여 제작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가의 안녕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왕실의 권위와 명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¹ 오례 중에서 제기는 길례와 흉례에 사용되었다.²

조선왕실 금속제기³에 관한 연구는 실제 유물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왕실제기의 특성과,

* 회암사지박물관 학예연구사

¹ 장경희, 「조선후기 王室祭器 鑄成 鑄器匠 연구」, 『한국공예논총』11권 2호(한국공예학회, 2008.여름), p.3.

² 길례에 사용된 제기는 宗廟, 社稷, 文廟 등의 제례에 사용되었고, 흉례에 사용된 제기는 선대 왕과 왕비의 사후 魂殿과 山陵의 제례에 사용되었다.

³ 제기의 기형에는 일반기형 제기와 특수기형 제기가 있는데, 일반기형의 경우 주로 전통적 성격을 띤 俗祭나 일반 사대부의 제사에서 사용되었다. 특수기형은 유교적 성격을 띤 大·中·小祀에서 사용되었는데, 같은 특수기형을 사용하더라도 왕이 主祭者가 되는 격이 높은 제사에서 금속제기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왕이 주제자가 되었을 때 사용하던 왕실 금속제기인 闕丘·社稷·宗廟·永寧殿·文廟·先農·原廟·山陵·魂殿제기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금속제기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제기의 종류와 수량에만 차이를 보일 뿐 제기의 형태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현존하는 금속제기 중 모든 종류가 사용되었던 종묘제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전례에 따라 잘 변화하지 않는 왕실미술의 보수성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최근 왕실미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금속제기에 대한 연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⁴ 그러나 현존하는 금속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왕실 금속제기의 양식적 흐름을 명확히 밝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기록의 분석을 통하여 조선왕실 금속제기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살피고, 祭器圖說과 현존유물을 비교·분석하여, 조선왕실 금속제기의 조형적 특징과 양식적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기가 보수적이지만 조금씩 변화하였고, 변화의 배경에 왕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⁴ 조선시대 금속제기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황경환, 『朝鮮王朝의 祭祀』(문화재관리국, 1967); 문화재관리국, 『宗廟祭器』(문화재관리국, 1976); 조미경, 『朝鮮朝 時代의 祭器에 關한 研究 : 宗廟祭器를 中心으로』(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8) 등에서는 종묘제기를 처음으로 소개하였으며, 윤방언, 『朝鮮王朝 宗廟와 祭禮』(문화재청, 2002)은 종묘제사에 사용된 기물을 총 망라하여 정리하였다. 최순권, 『宗廟祭器考』, 『종묘대제문물』(궁중유물전시관, 2004); _____, 「조선시대 彝尊에 대한 고찰」, 『생활문화연구』14(국립민속박물관, 2004.9); 박봉주, 「조선시대 국가 祭禮와 尊·罍의 사용」, 『조선시대사학보』58(조선시대사학회, 2011.9) 등에서는 제기도설을 중심으로 제기의 유래, 역사, 종류와 의미에 대해 밝혔고, 주경미, 「조선 전반기 금속공예의 대중교섭」, 『조선 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예경, 2006)에서는 조선 전기 제기도설에 중국의 영향을 정리하였다. 장경희, 「경기전의 의식구 고찰」, 『왕의 초상』(국립전주박물관, 2005); _____, 「조선후기 王室祭器 鑄成 鑪器匠 연구」11권 2호(한국공예학회, 2008.여름); _____, 「正祖代 景慕宮의 왕실공예품 연구: 종묘의 儀仗·儀物·祭器와 비교하여」, 『한국공예논총』12권 2호(한국공예학회, 2009.여름); _____, 「종묘 소장 王室祭器의 銘文 분석: 제작연대와 사용처의 고증을 중심으로」, 『도시역사문화』8(서울역사박물관, 2009); _____, 「조선후기 종묘제기와 청대 태묘제기의 비교」, 『천년의 이야기: 호릉불 아래, 작가와의 만남』(문화재청 종묘관리소, 2010); _____, 「종묘 의장의물의 종별과 조성과정」, 『천년의 이야기: 호릉불 아래, 작가와의 만남』(문화재청 종묘관리소, 2010); _____, 「조선 시조왕릉의 정자각 내부 의물 연구」, 『한국공예논총』15권 2호(한국공예학회, 2012.여름) 등 조선 왕실 의물 및 제기에 대한 연구는 최근 장경희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위궤 등 각종 문헌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기의 종별과 수량, 배치방법, 제기의 제작 실태 및 장인 등을 상세히 밝혔으나, 실제 제기의 양식과 시대적 흐름은 소략하게 다루었다. 사공영애, 「朝鮮 王室 香爐 研究 -古銅器形 香爐를 중심으로-」(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8); 하은미, 『宗廟祭器와 朝鮮時代 祭器圖說 研究』(고려대학교 대학원 미술사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2) 등은 제기도설을 통해 제기의 양식적 흐름을 살펴보았으나, 실제 제기에 대한 분석이 소략하게 다루어졌다. 장은혜, 박용수, 「종묘 출토 제기의 보존처리」, 『문화재보존연구』8(서울역사박물관, 2011)에서는 종묘광장에서 출토된 제기의 보존처리를 통해 처음으로 발견된 조선전기 제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조선시대 금속제기의 종류와 의미, 장인, 도설을 통한 시대적 흐름 등이 밝혀졌으나 실제 유물과 비교분석하여 양식적 흐름을 밝히지는 못하였다.

II. 조선시대 제기의 제작과 사용

조선은 유교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삼은 나라로 태조원년(1392)부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는 법령을 반포함으로써⁵ 제기의 구비가 시급하게 요구되었다. 태조 4년(1395)에 太廟를 준공하고⁶, 왕이 冕服을 입고 酌獻禮를 행한 것으로 보아⁷ 제기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제기는 제도가 정비되지 못하여 고려의 제기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⁸

예제의 정비는 태종대 儀禮詳定所를 설치하여⁹ 의례를 정비가 이루어졌으며,¹⁰ 태종 15년(1415)에 제기도설이 그려진 『諸祀序例圖』가 제작됨으로 인해¹¹ 제기의 제도도 정비되었다. 당시 제기도설은 『세종실록』 「오례」길례의 제기도설과 유사 할 것으로 생각된다.¹²

본격적인 제기 제작에 관한 기록은 세종조의 기사에서 나타난다. 세종 즉위년(1418) 제기구조를 하였고,¹³ 동왕 1년(1419)에 銅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동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제기를 銅器로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 그러나 동왕 5년(1423)에 예조 산하 奉常寺에서 圓壇 및 前朝始祖의 제기를 제작하면서 도자제기와 목제기를 사용하였으며, 다음 제사에 다시 갖추어 제사하도록 함으로써¹⁵ 동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시기에 한

5 『太祖實錄』 2卷, 太祖元年 9月24日(壬寅).

6 『太祖實錄』 8卷, 太祖 4年 9月 29日(庚申).

7 『太祖實錄』 8卷, 太祖 4年 10月 5日(乙未).

8 당시 제기의 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것은 태종의 皇明禮制 요청 기사에서 알 수 있다. 태종은 두 차례 황명에 제를 요청하면서, 祖廟, 社稷, 山川, 文廟 등의 제사에 중국의 예제를 알지 못하여 고려의 舊禮를 쓰고 있다고 하였으나, 명은 중국의 예제를 藩國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거절하여 조선의 本俗을 따르라고 하였다. 『太宗實錄』 1卷, 太宗 1年 6月 25日(壬午); 『太宗實錄』 2卷, 太宗 1年 12月 9日(癸亥); 『太宗實錄』 22卷, 太宗 11年 11月 7日(甲子); 『太宗實錄』 23卷, 太宗 12年 5月 3日(丙戌).

고려시대의 제기에 대해서는 현재 도자제기가 주로 발견되었고, 미국 코넬대학교박물관에 금속제 簠의 뚜껑이 1점 남아있다. 장성욱, 「高麗時代 陶磁祭器 研究」(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2); 김효진, 「龍仁 西里 窯址 出土 高麗白磁 祭器 研究」(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협동과정 미술사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2); 국립문화재연구소, 『(미국 코넬 대학교 허버트 F. 존슨 미술관)한국문화재』(2009) 참조.

9 『太宗實錄』 20卷, 太宗 10年 8月 28日(壬戌).

10 『太宗實錄』 29卷, 太宗 15年 3月 3日(辛丑).

11 『世宗實錄』 23卷, 世宗 6年 1月19日(丙申).

12 『世宗實錄』 「五禮」序文에 태종의 명으로 허조가 길례 및 의식을 찬한 것을 취하였다는 내용과 각주11)의 『제사서례도』의 회준과 상준의 형상이 세종실록 오례의 제기도설과 동일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3 『世宗實錄』 1卷, 世宗 卽位年 10月 13日(己丑).

14 『世宗實錄』 3卷, 世宗 1年 4月 13日(丁亥).

15 『世宗實錄』 22卷, 世宗 5年 10月 27日(甲戌).

시적으로 도자제기¹⁶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세조 1년(1455)에 종묘, 사직의 친제 시 銀爵을 사용했고, 제기는 工曹에서 제작하여 예조산하 봉상시에서 보관하여 사용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¹⁷

성종연간에는 제기도감이 여러 차례 설치되어 제기가 예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고치게 하였다는 기사가 다수 등장하는데,¹⁸ 제기를 예문에 맞게 정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형태에 변형을 인정하지 않는 왕실제기의 보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제기는 예문에 훼손되거나 정결하지 못한 제기는 땅에 묻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중종 12년(1517)의 기사를 통해 별도로 두었다가 다시 제기를 제작할 때 녹여서 재사용하거나¹⁹ 수리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⁰

조선후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조선 전기에 구축된 각종 제도적 장치가 파괴되었다. 특히 왕실의 제사를 지내던 종묘와 사직을 비롯하여 각 왕릉과 전각들의 제기 또한 흩어지거나 사라지고 부서지게 되었다. 국가 사전을 정비할 수 없었던 혼란 상황은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정비되기 시작한다. 선조부터 효종대까지는 전란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망실되거나 부서진 제기를 복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祭器都監을 설치하여 충력을 기울였다. 비록 전란으로 제기 중 일부는 사기로 대체하기도 하였지만 물력이 확보되는 대로 다시 동기로 제작하였다.²¹ 그 결과 종묘, 사직, 문묘, 왕릉 등 모든 제사시설의 제기들은 일품을 갖추게 되어 이후에는 제기를 대량으로 제작하는 일은 점점 줄었다. 이후에는 선대 왕과 왕비의 國喪 및 魂殿, 山陵 제례를 위해 그리고 국상을 마치고 3년 뒤 신주를 종묘에 祔廟하면서 제기가 제작되었다. 또한 주기적으로 제기 奉審을 통하여 파손되거

¹⁶ 이 때 사용한 도자제기는 분청제기이다. 정소라, 『朝鮮前期 吉禮用 粉靑祭器 研究』, 『미술사학연구』223(한국미술사학회, 1999.9), p.10.

¹⁷ 『世祖實錄』 2卷, 世祖 1年(1455) 9月 6日(戊寅).

¹⁸ 『成宗實錄』 51卷, 成宗 6年 1月 1日(辛亥); 『成宗實錄』 245卷, 成宗 21年 閏9月 27日(丙午); 『成宗實錄』 246卷, 成宗 21年 10月 30日(戊寅); 『成宗實錄』 246卷, 成宗 21年 11月 22日(庚子); 『成宗實錄』 249卷, 成宗 22年 1月 8日(乙酉); 『成宗實錄』 249卷, 成宗 22年 3月 27日(癸卯).

¹⁹ 『中宗實錄』 28卷, 中宗 12年 6月 17日(辛酉). 세종대의 기사에는 예문에 맞게 옛것을 불살랐다고 기록되어 있다. 『世宗實錄』 1卷, 世宗 卽位年 10月 27日(癸卯).

²⁰ 『中宗實錄』 56卷, 中宗 20年 12月 18日(壬寅).

²¹ 『宣祖實錄』 134卷, 宣祖 34年 2月 28日(丁酉); 『宣祖實錄』 136卷, 宣祖 34年 4月 17日(甲申); 『宣祖實錄』 180卷, 宣祖 37年 10月 20日(丙寅); 『社稷宗廟文廟祭器都監儀軌』, 1605年, 卍14930; 『宣祖實錄』 184卷, 宣祖 38年 2月 28日(壬申); 『祭器都監儀軌』, 1611年, 卍14931; 『光海君日記』 51卷, 光海君 4年 3月 14日(戊申); 『光海君日記』 108卷, 光海君 8年 10月 21日(戊午); 『光海君日記』 109卷, 光海君 8年 11月 17日(甲申); 『仁祖實錄』 5卷, 仁祖 2年 11月 21日(辛未); 『祭器樂器都監儀軌』, 1624年, 卍13734; 『仁祖實錄』 34卷, 仁祖 15年 3月 7日(丙午); 『仁祖實錄』 35卷, 仁祖 15年 6月 11日(戊申); 『仁祖實錄』 49卷, 仁祖 26年 7月 29日(壬辰); 『孝宗實錄』 11卷, 孝宗 4年 閏7月 12日(乙巳).

나 망실된 제기를 조사한 후 제작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제사가 만들어지면서 제기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숙종은 明 神宗 황제를 제사하는 大報壇을 세웠고, 의주와 제기는 『大明集禮』²²에 근거하여 만들었다.²³ 『대명집례』는 세종대부터 참고하여 예제정비에 영향을 주었지만, 직접적으로 제기를 만들면서 참고된 것은 숙종대가 처음이다. 고종은 1897년 圓丘壇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국을 천명하였다. 이때 환구단에서 제사지내기 위한 제기도 제작되었다.²⁴ 당시 제기는 이전시기와 다른 황제국 예에 맞는 제기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⁵

영조 25년(1749)에 태묘에 祭器櫛을 만들어 夾室에 두고 제기를 간직하였으며,²⁶ 정조 16년(1792)에는 제기의 제작연대를 새기고, 그 재질별로 사용연한을 정하였다.²⁷ 이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제작해왔던 제기들을 주기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게 하였으며, 더욱 제기를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헌기록을 통해서 조선왕실 제기는 동의 부족으로 자기로 만들어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鑄器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유기란 구리(銅)를 주성분으로 하여 주석이나 아연, 니켈 등을 혼합한 합금물질이다.²⁸ 유기를 제작하는 기법에는 方子기법과 鑄造기법, 半方子기법이 있는데²⁹, 조선시대 왕실 유제 제기는 모두 주조기법으로 제작되었다. 유제 제기를 제작한 장인은 鑄匠으로 성종대 만들어진 『경국대전』을 살펴보

22 명 태조의 칙령으로 편찬된 국가전례서로 1369년(洪武2) 8월에 徐一夔 등이 편찬을 시작하여 1370년 9월에 50권으로 완성되었고, 1530년(嘉靖9) 6월에 간행되었다. 조선에서는 세종대부터 『대명집례』를 구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광해군 초기에 수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숙종은 1685년(숙종11) 시강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대명집례』에 낙장이 많아 청에서 구입하도록 명하였으나, 구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1694년(숙종20) 조선 본으로 중간하였다.(김문식, 「숙종이 중간한 대명집례」, 『문헌과해석』28(문헌과해석사, 2004.가을); _____, 「조선시대 국가전례서의 편찬 양상」, 『장서각』21(한국학중앙연구원, 2009.4))

23 『肅宗實錄』 34卷, 肅宗 30年 12月 21日(丁亥), 대보단의 의주와 제기에 관해서는 『皇壇儀』(1747)와 『皇壇增修儀』(1749)에 자세히 나와 있다.

24 『高宗實錄』 34卷, 高宗 34年(1897) 8月 10日.

25 『高宗實錄』 36卷, 高宗 34年(1897) 10月 20日.

26 『英祖實錄』 69卷, 英祖 25年 5月 2日(己酉); 『英祖實錄』 69卷, 英祖 25年 6月 27日(癸卯). 현재 종묘 정전의 협실에 제기장이 있는데, 장 표면에 1실, 2실, 3실 등의 표시가 되어있어 실별로 제기를 넣어두고 보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7 『正祖實錄』 34卷, 正祖 16年(1792) 3月 1日(庚午).

28 안귀숙, 『유기장: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화산문화, 2002), p.9.

29 방자기법은 정확히 72%의 구리와 28%의 주석으로 합금된 놋쇠를 불에 달구어 메질을 되풀이해서 얇게 늘여 가며 형태를 잡아가는 기법이다. 주조기법은 불에 용해한 쇠물을 일정한 틀에 부어서 원하는 기물을 만들어 내는 기법이다. 반방자기법은 주조기법과 방자기법을 절충한 방법이다. 안귀숙, 위의 책(2002).

면 京工匠과 外工匠으로 구분되어 총 53명이 소속되어 있었다.³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초에는 예조 산하 봉상시에서 주관하여 공조에서 제기를 제작하였다. 이후에는 제기도 감이라는 임시관청을 설치하여 대신을 도제조로 삼고 공조에 소속되어 있는 장인을 차출하여 제기를 제작하였다.

금속제기의 제작 재료와 장인 및 제작과정을 선조38년(1605) 제작된 『社稷宗廟文廟祭器都監儀軌』³¹를 통해서 살펴보면 제기의 제작은 小木匠이 나무로 見樣을 만들어 주조하였고, 畫員이 起畫한 후 銅鐵 1근과 鐵 4냥의 배합으로 初鍊, 再鍊, 三鍊의 과정을 거쳐 15종 88인의 장인이 제작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³²

조선시대 금속제기가 사용된 제사는 크게 大祀·中祀·小祀로 구분되고 그밖에도 祈告祭·俗祭·州縣祭가 있다(표 1). 각 제사마다 사용되었던 제기들의 종류와 수는 제사의 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일수록 많은 종류의 제기가 사용되었다.³³ 본 장에서는 제사의 절차와 제기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가장 큰 제사인 宗廟五享大祭³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예서별 제사의 종류

	『世宗實錄』五禮儀	『國朝五禮儀』辨祀	『大韓禮典』辨祀
大祀	社稷·宗廟	社稷·宗廟·永寧殿	園丘·社稷·宗廟·永寧殿
中祀	風雲雷雨·嶽海瀆·先農·先蠶· 雩祀·文宣王·朝鮮檀君·後朝鮮 始祖箕子·高麗始祖	風雲雷雨·嶽海瀆·先農·先蠶· 雩祀·文宣王·歷代始祖(檀君· 箕子·高麗太祖·三國始祖)	先農·先蠶·雩祀·景宮宮文廟· 歷代君王·關王廟
小祀	靈星·名山大川·司寒·馬祖· 先牧·馬社·馬步·七祀·祭祭	靈星·老人星·馬祖·名山大川· 司寒·先牧·馬社·馬步·禱祭· 祭祭·醢祭·七祀·蠶祭·勸祭	山川壇·專祀·嶽鎮海瀆·名山大 川·司寒·馬祖·祭祭·醢祭·蠶 祭·厲祭·啓聖祠·四賢祠
祈告	-	社稷·宗廟風雲雷雨·嶽海瀆· 名山大川·雩祀	園丘·宗廟·社稷·嶽鎮海瀆· 名山大川·雩祀
俗祭	-	文昭殿·眞殿·懿廟·山陵	眞殿·山陵·各宮園廟墓
州縣	-	社稷·文宣王·醢祭·勸祭·祭祭	社稷·文廟·醢祭·厲祭·祭祭

³⁰ 경공장은 공조에 8명, 상의원에 4명, 내수사에 5명 총 17명이고, 외공장은 경기도 수원, 광주, 양주에 3명, 충청도 충주, 청주, 공주, 홍주에 4명, 경상도 경주, 상주, 성주, 안동, 진주, 김해, 대구에 7명, 전라도 제주, 전주, 남원, 나주, 장흥, 순천에 6명, 영안도 영흥, 안변, 함흥, 경성에 4명, 평안도 평양, 영변, 안주, 의주, 정주, 성천, 강계, 숙천에 8명, 강원도 강릉, 원주에 2명, 황해도 황주, 해주에 2명으로 총 36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經國大典』卷6 工典, 京工匠, 外工匠.

³¹ 규14930.

³² 장경희 앞의 논문(2008), pp.8-9 참고하여 재정리.

³³ 각주3) 참고.

³⁴ 종묘의 춘·하·추·동 및 납일에 지내는 제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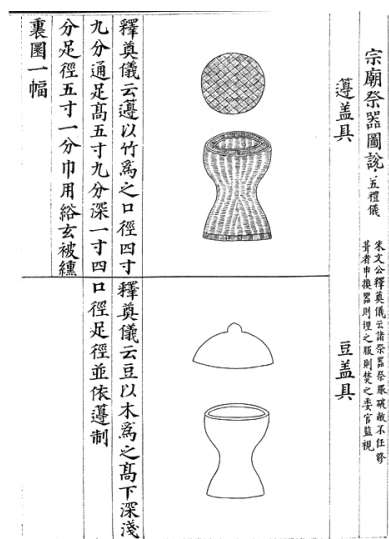
Ⅲ. 제기의 양식 분석

조선시대 왕실 금속제기는 임진왜란 때 대부분의 제사시설이 소실되었으므로, 현존하는 대부분 금속제기는 조선후기의 유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9년 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진동 발굴조사에서 청동제기 일괄유물이 41점과³⁶ 2010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실시한 종묘광장 발굴조사에서 제기 4점이 출토되어,³⁷ 제기도설과 도자제기로만 추정이 가능했던 조선전기 금속제기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었다(표 9, 11, 13).

조선왕실 금속제기는 편년유물이 드물기 때문에 제기도설을 통해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현존유물에 대입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 제기도설을 통해 본 제기의 변화

조선시대 예서와 의궤에는 제기도설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기물의 형태를 그린 그림



도 3 <종묘제기도설>, 1706년, 『종묘의궤』

과 함께 명칭, 연원, 재질, 규격 등을 설명하고 있다(도 3). 제기도설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제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편년자료가 거의 없는 현존 금속제기의 시기추정의 근거가 된다. 조선시대 제기도설은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오례」를 시작으로 연대미상의 <祭器圖>까지 21개를 대상으로 삼았다(표 2).

세종대에는 古制 연구를 통하여 완성된 『세종실록』 「오례」제기도설은 『紹熙州縣釋奠儀圖』, 『禮書』, 『事林廣記』, 『周禮圖』, 『三禮圖』, 『聖宋頒樂圖』 등을 근거로 제기의 기형과 문양이 정리되었다. 조선시대 제기는 중국의 고제를 연구함에 있어

³⁶ 청진동 출토제기는 16세기로 추정되며, 爵 3점과 무문의 鉢, 盞, 접시 등이 출토되었다. 서울역사박물관, 『아스팔트 아래 운중가』(2012).

³⁷ 종묘광장 출토 제기에는 簋, 著尊, 山壘, 鳥彝가 있으며, 15~16세기 문화층에서 출토되었다. 산리와 착준의 명문을 통하여 제작시기는 15세기 중반경으로 추정된다. <‘조선초 제기’ 종묘앞 도량서 첫 출토>(한겨레 신문, 2010년 10월 25일 기사); 장은혜, 박용수, 『종묘 출토 제기의 보존처리』, 『문화재보존연구』8(서울역사박물관, 2011).

어느 한 종류의 예서를 참고하기보다 다양한 예서를 참고 하였고 기종별로 참고 예서를 달리하여 그 기형과 문양을 취사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만의 특수성을 갖는 제기가 성립되었다.

표 2 의례 및 예서의 제기도설에 나타난 제기의 종류³⁸

제기도설	개수	제기 종류
『世宗實錄』 「五禮」(1454)	35	簋, 豆, 簠, 簋, 甗, 銅, 俎, 篚, 圭瓚, 爵, 玷, 罍尊疏布, 鷄彝, 鳥彝, 罍彝, 黃彝, 犧尊, 象尊, 著尊, 壺尊, 大尊, 山罍, 龍勺, 洗爵, 洗, 牛鼎(鼎局, 鼎竈, 鼎畢), 羊鼎, 豕鼎, 釜, 鑊, 匕, 鸞刀, 戾, 几, 筵
『祭器及饌實圖』 (연대미상)	8	犧尊, 象尊, 著尊, 壺尊, 大尊, 龍勺, 山罍, 洗爵
『國朝五禮儀序例』 (1474)	39	簋, 豆, 簠, 簋, 甗, 銅, 俎, 篚, 瓚, 瓚盤, 爵, 玷, 罍, 鷄彝, 鳥彝, 罍彝, 黃彝, 犧尊, 象尊, 著尊, 壺尊, 大尊, 山罍, 龍勺, 洗爵, 洗, 牛鼎(鼎局, 鼎竈, 鼎畢), 羊鼎, 豕鼎, 釜, 鑊, 匕, 鸞刀, 几, 戾, 筵, 尊(俗祭), 盞(俗祭), 卓(俗祭)
『社稷宗廟文廟祭器都監儀軌』 (1605)	5	簠, 簋, 銅, 毛血盤, 龍瓚祭具
『祭器都監儀軌』 (1611)	37	鷄彝, 鳥彝, 罍彝, 黃彝, 犧尊, 象尊, 大尊, 著尊, 壺尊, 山罍, 罍, 龍勺, 牛鼎, 羊鼎, 豕鼎, 鼎竈, 鼎局, 畢木, 鸞刀, 黍稷匕, 槃, 池, 洗爵, 洗, 香爐, 香檯, 燔肝爐, 爵, 玷, 篚, 中朴桂于里, 臺, 散子于里, 臺, 實果于里, 臺, 是卓
『祭器樂器都監 儀軌』 (1624)	16	牛鼎, 羊鼎, 豕鼎, 龍勺, 燭臺, 香盒, 大火爐, 大伏羅, 梁東海, 酒罍, 檯, 大也, 鐘, 大者, 木豆, 食祝
『宗廟儀軌』 (1706)	46	簋, 豆, 簠, 簋, 甗, 銅, 俎, 篚, 瓚, 瓚盤, 爵, 玷, 罍, 鷄彝, 鳥彝, 罍彝, 黃彝, 犧尊, 象尊, 著尊, 壺尊, 大尊, 山罍, 龍勺, 洗爵, 洗, 牛鼎(鼎局, 鼎竈, 鼎畢), 羊鼎, 豕鼎, 釜, 鑊, 匕, 鸞刀, 几, 床, 燭臺*, 香爐蓋具*, 香盒蓋具*, 毛血盤*, 燈盞*, 大牲匣蓋具*, 小牲匣蓋具*, 食函*, 黍稷匕*, 餘飯*, 燔肝爐* (*五禮儀不在)
『皇壇儀』 (1747)	40	簋, 豆, 登, 銅, 簠, 簋, 爵, 玷, 圭瓚, 瓚槃, 沙池, 牛鼎, 羊鼎, 豕鼎, 鼎竈, 鼎局, 鼎匕, 鼎畢, 釜, 鑊, 鸞刀, 俎, 篚, 大牲匣, 小牲匣, 壺尊, 著尊, 山罍, 龍勺, 鷄彝, 舟, 鳥彝, 舟, 匱, 罍槃, 洗, 洗爵, 毛血盤, 香爐, 香盒
『皇壇增修儀』 (1749)	40	簋, 豆, 登, 銅, 簠, 簋, 爵, 玷, 圭瓚, 瓚槃, 沙池, 牛鼎, 羊鼎, 豕鼎, 鼎竈, 鼎局, 鼎匕, 鼎畢, 釜, 鑊, 鸞刀, 俎, 篚, 大牲匣, 小牲匣, 壺尊, 著尊, 山罍, 龍勺, 鷄彝, 舟, 鳥彝, 舟, 匱, 罍槃, 洗, 洗爵, 毛血盤, 香爐, 香盒
『國朝喪禮補編』 (1752)	18	瓚, 瓚槃, 爵, 玷, 篚, 罍, 鷄彝, 鳥彝, 罍彝, 黃彝, 犧尊, 象尊, 著尊, 壺尊, 山罍, 龍勺, 洗爵, 洗
『親巹儀軌』 (1767)	6	簋, 豆, 爵, 玷, 山罍, 龍勺
『宮園儀』(1780) 신간본	42	簋, 豆, 甗, 銅, 簠, 簋*, 爵, 玷, 瓚, 瓚槃, 牛鼎, 羊鼎, 豕鼎, 鼎竈, 鼎畢, 鼎匕, 鼎畢, 鸞刀, 俎, 壺尊, 著尊, 山罍, 犧尊, 象尊, 鷄彝, 鳥彝, 罍彝, 黃彝, 罍, 篚, 龍勺, 釜, 匱*, 匱槃*, 卓, 大小牲匣, 香合*, 香爐*, 鑊, 毛血槃, 洗爵, 洗 (*『대명집례』)
『社稷耨儀軌』 (1783)	33	簋, 豆, 甗, 銅, 簠, 簋*, 爵, 玷, 牛鼎, 羊鼎, 豕鼎, 鼎局, 鼎竈, 鼎畢, 鼎匕, 鸞刀, 俎, 著尊, 山罍, 象尊, 大尊, 罍, 篚, 龍勺, 釜, 鑊, 卓, 大牲匣, 小牲匣(小牲匣蓋), 香盒*, 香爐*, 毛血槃, 洗爵, 洗 (*『대명집례』)
『景慕宮儀軌』 (1784)	39	簋, 豆, 簠, 簋*, 甗, 銅, 爵, 玷, 瓚, 瓚槃, 鷄彝, 鳥彝, 罍彝, 黃彝, 犧尊, 象尊, 著尊, 壺尊, 山罍, 罍, 龍勺, 洗爵, 洗, 俎, 篚, 牛鼎, 羊鼎, 豕鼎, 鼎竈, 鼎局, 鼎匕, 鼎畢, 鸞刀, 毛血槃, 大牲匣蓋具, 小牲匣蓋具, 香爐* (*『대명집례』)
『宮園儀』 (1785) 중간본	42	簋, 豆, 簠, 簋*, 甗, 銅, 爵, 玷, 瓚, 瓚槃, 鷄彝, 鳥彝, 罍彝, 黃彝, 犧尊, 象尊, 著尊, 壺尊, 山罍, 罍, 龍勺, 洗爵, 洗, 俎, 篚, 牛鼎, 羊鼎, 豕鼎, 鼎竈, 鼎局, 鼎匕, 鼎畢, 釜, 鑊, 鸞刀, 毛血槃, 牲匣, 香爐*, 香合*, 卓, 匱*, 匱槃* (*『대명집례』)

³⁸ 진하게 표시된 것은 제기도설에서 처음 등장하는 기형을 표시한 것이다.

『春官通考』 (1788)	51	簋, 豆, 簠, 簠*, 瓿, 銅, 俎, 簠, 瓚, 瓚槃, 爵, 坫, 罍, 鷄彝, 鳥彝, 罍彝, 黃彝, 犧尊, 象尊, 著尊, 壺尊, 大尊, 山罍, 龍勺, 洗, 牛鼎, 羊鼎, 豕鼎, 鼎, 鼎, 鼎, 鼎, 鼎, 鼎, 鼎, 鼎, 金, 鑊, 鑿刀, 几, 辰, 筵, 尊(俗祭), 盞(俗祭), 卓(俗祭), 匱*, 匱槃*, 大牲匣蓋具, 小牲匣蓋具, 香合*, 香爐*, 毛血盤, 神椅, 神榻 (*『대명집례』)
『尊周彙編』 (1800)	40	簋, 豆, 登, 銅, 簠, 簠, 爵, 坫, 圭瓚, 瓚槃, 沙池, 牛鼎, 羊鼎, 豕鼎, 鼎, 鼎, 鼎, 鼎, 鼎, 鼎, 鼎, 鼎, 鼎, 鼎, 金, 鑊, 鑿刀, 俎, 簠, 大牲匣, 小牲匣, 壺尊, 著尊, 山罍, 龍勺, 鷄彝, 舟, 鳥彝, 舟, 匱, 匱槃, 洗, 洗, 毛血盤, 香爐, 香盒
『太常志』 (1873)	70	簋, 豆, 瓿, 銅, 簠, 簠, 爵, 坫, 瓚, 瓚槃, 鷄彝, 鳥彝, 罍彝, 黃彝, 犧尊, 象尊, 著尊, 壺尊, 大尊, 山罍, 龍勺, 罍, 洗, 俎, 簠, 牛鼎, 羊鼎, 豕鼎, 鼎, 鼎, 鼎, 鼎, 鼎, 鼎, 金, 鑊, 盆, 飯, 飯匕, 酒槽, 篩, 鑿刀, 毛血盤, 牲匣, 香爐, 盞, 瓶, 卓, 香盒, 燭臺, 沙尊, 瓶, 果于里, 油果于里, 匱, 匱槃, 造禮器尺, 斛, 斗, 升, 架子, 皮桶, 食函, 籩豆, 籩升, 衡, 神輿, 食匕, 酒瓶, 酒鐺, 瓶匣
〈宗廟親祭規制圖屏〉 (1864~1896)	41	簋, 豆, 簠, 簠, 瓿, 肝膋瓿, 俎, 鷄彝, 鳥彝, 罍彝, 黃彝, 犧尊, 象尊, 著尊, 壺尊, 大尊, 山罍, 龍瓚, 瓚槃, 爵, 坫, 木薦俎牲匣, 簠, 金, 鑊, 鑿刀, 燈盞, 毛血盤, 罍, 牛鼎, 羊鼎, 豕鼎, 龍勺, 鼎, 鼎, 鼎, 鼎, 燭臺, 祝板, 香爐, 香盒
『大韓禮典』 (1897~98)	48	簋, 豆, 簠, 簠, 瓿, 銅, 俎, 簠, 瓚, 瓚槃, 爵, 坫, 罍, 鷄彝, 鳥彝, 罍彝, 黃彝, 犧尊, 象尊, 著尊, 壺尊, 大尊, 山罍, 龍勺, 尊, 盞, 洗, 牛鼎(鼎, 鼎), 羊鼎, 豕鼎, 金, 鑊, 匕, 鑿刀, 卓, 大牲匣, 小牲匣, 匱, 槃, 沙池, 神椅, 神榻, 神座, 黼屨, 曲几, 莞筵
〈祭器圖〉 (연대미상)	35	簋, 豆, 簠, 簠, 瓿, 肝膋瓿, 銅, 爵, 坫, 龍瓚, 瓚槃, 香爐, 香盒, 祝, 俎, 簠, 燈盞, 燭臺, 鷄彝, 舟, 鳥彝, 舟, 罍彝, 舟, 黃彝, 舟, 犧尊, 象尊, 著尊, 壺尊, 山罍, 毛血盤, 罍, 龍勺, 雲坫

『국조오례의서례』의 제기도설은 『세종실록』 「오례」와 거의 유사하지만, 豆, 瓚槃, 犧尊, 象尊, 山罍 등의 일부기형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세종실록』 「오례」의 상준과 희준은 『사림광기』를 참용하여鉢형태에 각각 코끼리와 소의 형상을 새긴 형태이지만, 『국조오례의서례』는 『소희주현석전도의』를 참용하여 코끼리와 소의 형상에 등을 파고 뚜껑을 얹은 형식의 그릇으로 변화한다(표 3). 이 형식은 이후의 제기도설에도 계속 등장하여 『국조오례의서례』의 상준과 희준의 도설이 전범으로 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尊, 盞, 卓 등 왕실俗祭에 사용하는 제기가 등장하여 당시에 왕실 속제도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2).

표 3 희준, 상준 제기도설 비교






	세종실록 오례	제기급찬실도	국조오례의	종묘의궤	제기도
희준					
상준					

임진왜란 이후 전쟁으로 소실된 왕실 제기를 새로 만들거나 보수하기 위해 설치된 도감의 기록인 『사직종묘문묘제기도감의궤』, 『제기도감의궤』, 『제기악기도감의궤』의 제기도설은 대부분 조선전기와 유사한 문양과 형태를 지니지만, 『국조오례의서례』에는 실려 있지 않은 기종이 새롭게 수록되어 주목된다(표 2). 이때 새로 등장하는 기형 중에는 국가 정사가 아닌 왕실 속제에서 사용하던 기물인 于里도 포함되어 있어 속제에 사용하던 제기가 공적인 제사의 영역으로까지 그 사용이 확대되어 제기도설에도 공식적으로 실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16세기 예학의 발달과 『주자가례』의 확산으로 사대부례가 발달하게 된 예학의 경향과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³⁹

숙종대에는 제작된 『종묘의궤』의 제기도설은 『국조오례의서례』와 거의 동일하지만 『국조오례의서례』에 실리지 않은 11개의 기종이 ‘五禮儀不在’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한다(표 2). 이 기종들은 『제기도감의궤』에서 나타나던 것들도 있어 실제 제사에 사용했으나 도설에 등장하지 않던 것이 『종묘의궤』에서 정례화 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종묘의궤』의 제기도설은 『국조오례의서례』 전례를 따르면서도 당시 시의에 맞게 『국조오례의서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조대 대보단에 증수에 관한 의주를 기록한 『황단의의』와 『황단증수의』에서 『대명집

표 4 보, 착준, 산뢰 제기도설 비교

	황단의의	존주휘편	대명집례 사친	국조오례의	상례보편	친잠의궤
보						
착준						
산뢰						

³⁹ 안성희, 위의 논문(2008), pp.23-24.

례』祀天제기의 영향을 받은 제기도설이 등장한다(표 4). 그러나 영조대 이후 편찬된 『國朝喪禮補編』과 『親蠶儀軌』에서는 아직 『대명집례』와 유사한 도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대보단 제사의 대상이 명 황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동일시기 우리나라 사건의 제기는 여전히 『국조오례의서례』의 영향을 받은 제기들이 제작되었다. 그러나 대보단이 설립되고 난 후부터 보수성이 강한 제기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분명하다.

정조대 제작된 『宮園儀』, 『社稷暑儀軌』, 『景慕宮儀軌』, 『春官通考』의 제기도설 중에서 簠, 簋, 香爐, 香盒, 匱, 匱槃, 등에서 『대명집례』의 도설을 참용하였으며(표 2), 특히 보와 궤는 『대명집례』의 도설과 매우 유사하다(표 5).

표 5 대명집례 종묘와 유사한 제기도설 비교

	대명집례 종묘	궁원의	사직서의궤	경모궁의궤	춘관통고	태상지	종묘친제 규제도병
보							
궤							

『경모궁의궤』와 『궁원의』(重刊本)에서는 이전시기와는 볼 수 없는 제기도설의 화면 구성상의 변화가 나타나 주목된다. 이전의 도설에서는 도식과 설명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두 도설은 그림은 위로 설명은 아래로 구획이 나누어져 더욱 보기 쉬운 구성으로 변화하였다(표 6). 이는 당시 선진문물이었던 청대 인쇄기술과 책의 구성 방식을 수용하여 개혁의지를 보인 것이라 생각된다.

고종대 황제국 선포 후 편찬한 예서인 『대한예전』에서는 『국조오례의서례』의 제기도설과 똑같은 형태와 문양이 제기도설에 표현되었다. 그러나 당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한예전』의 편찬기관인 史禮所가 중간에 폐지되어⁴⁰ 편찬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것을 참

⁴⁰ 『高宗實錄』 38卷, 高宗 35年 10月 25日(陽曆).

표 6 제기도설의 구성방식 비교

	국조오례의	궁원의
제기도설의 구성방식		

고할 때, 실제 사용되었던 제기의 형태와는 다를 것이라 생각된다. 고종대 제작된 장서각 소장 『태상지』 제기도설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의 오향친제설찬도에 『대명집례』의 제기도설 유사한 형태와 문양의 제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종대에는 정조대와 마찬가지로 『대명집례』 제기도설의 참고한 제기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5).

표 7 계이, 황이, 운점 제기도설과 유물 비교

	제기도	대명집례 종묘	유물
계이			<p>〈鷄彝, 舟〉, 조선후기, 계이 높이21.0, 계이주 높이 13.4, 국립고궁박물관(『종묘대제문물』, 도 14)</p>
황이			<p>〈黃彝, 舟〉, 조선후기, 황이 높이20.7, 황이주 높이 13.3, 국립고궁박물관(『종묘대제문물』, 도 17)</p>
운점			<p>〈雲玷〉, 조선후기, 높이9.0, 국립고궁박물관(『종묘대제문물』, 도 64)</p>

마지막으로 연대미상의 장서각 소장 <제기도>에서는 전시기 보다 『대명집례』의 도설과 유사한 기형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며(표 7), 제기도설과 부합하지 않고 변형된 형태를 보이는 제기도 등장한다. 이는 대한제국기 황제국을 칭하면서 이전 보다 더 위엄 있는 제기를 만들기 위해 시도로 생긴 변화라고 추정된다. 실제로 현존유물의 분석에서 <제기도>와 일치하는 제기들이 많이 나타나 주목된다(표 7).

이상의 제기도설 내용을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서례』의 도설은 상준과 희준의 2개의 기형에서 변화를 보이지만 나머지 기형에서는 대체로 유사한 기형과 문양을 나타내고 이후 『종묘의궤』까지 국가에서의 전범을 이룬다. 『국조오례의서례』 제기도설과 유사한 기형과 문양을 보이는 것을 1유형 정하였다. 2유형은 정조대부터 고종대까지 영향을 강하게 받은 『대명집례』 제기도설과 유사한 기형과 문양을 보이는 것을 2유형으로 정하였다.

2. 종묘제기의 양식분석

조선왕실 금속제기는 국립고궁박물관과 문화재청 종묘관리소, 문묘, 서울역사박물관, 한울문화재연구원, 삼척시립박물관, 어진박물관, 개인 등을 중심으로 현존 예가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종을 갖춘 제기는 종묘제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현존유물의 분석은 종묘제기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⁴¹ 종묘제기는 그 용도에 따라 음식을 담는 식기, 술을

표 8 종묘 금속제기의 용도별 종류

용도	종류
食器	簋, 簠, 甗, 鉶
酒器	瓚, 瓚盤, 爵, 卣, 鳥彝, 鷄彝, 罍彝, 黃彝, 舟, 象尊, 犧尊, 著尊, 壺尊, 山罍, 龍勺, 雲卣
水器	洗, 洗盤, 匜, 匜盤
기타	香爐, 香盒, 毛血盤, 燭臺, 燈臺, 臺

⁴¹ 현재 종묘제기는 문화재청 종묘관리소와 국립고궁박물관에 분산 소장되어 있다.(필자는 2008년 7월부터 9월 까지 종묘관리소에 소장 중인 제기 50종 2230여점을 실사하였다. 당시 종묘제기를 조사할 기회를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종묘관리소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문묘제기는 석전대제 봉행 시 사용되고 있었으나,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였다. 서울역사박물관에는 2010년 종묘광장 출토 제기(각주 37) 참조, 한울문화재연구원에는 2009년 청진동 출토 제기(각주 36) 참조, 삼척시립박물관에는 濬慶墓 제기, 어진박물관에는 慶基殿 제기와 肇慶廟 제기, 개인에게는 雲峴宮 제기가 각각 소장되어 있다. 이중 종묘광장과 청진동에서 출토된 제기는 도설과 도자제기로만 추정이 가능했던 조선전기 제기의 모습을 밝히는 유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담는 주기, 물을 담는 수기와 기타제기로 분류할 수 있다(표 8). 본고에서는 시기 추정이 가능한 명문자료가 있거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기종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 식기

보의 기형은 사방이 각진 형태에 높은 굽을 가지며 뚜껑이 있는 형태이다. 보의 동체에는 사방에 雷紋이 둘러져있고, 사면의 앞뒤 중앙에는 용머리 장식이 부착되었다. 사면의 좌우에는 용의 입에서 손잡이가 나오는 용두형 손잡이가 부착되었다. 동체에는 水波紋이 시문되었고, 굽에는 蓮瓣紋이 새겨져 있다. 보의 뚜껑은 보의 동체를 뒤집은 모습과 유사한 형태이고 상부에는 물결형태의 如意頭紋이 시문되었고 뚜껑의 상면에는 수파문이 표현되었다. 동체와 맞물리는 사방에는 동체와 마찬가지로 사방에 뇌문이 둘러져있다. 보의 명문유물은 三年銘 유물⁴²과 壬辰造, 甲辰造의 간지명 유물이 있는데, 3년명 유물은 『사직종묘문묘제기도감의궤』와 그릇의 형태와 손잡이, 수파문까지 거의 유사해 의궤편찬당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표 9).

표 9 보, 궤의 유형분류

	1유형			2유형		
	사직종묘문묘제기도감의궤	1-1유형	1-2유형	2-1유형	2-2유형	
보		 〈篋〉, 1605년, 높이 10.6, 종묘관리소 (필자촬영)	 〈篋〉, 조선후기, 높이 11.5, 종묘관리소 (필자촬영)	 〈篋〉, 조선후기, 높이 13.5, 종묘관리소 (필자촬영)	 〈篋〉, 조선후기, 높이 12.5, 종묘관리소 (종묘관리소 제공)	
궤		 〈篋〉, 1605년, 높이 12.3, 종묘관리소 (필자촬영)	 〈篋〉, 15세기, 높이 13.1, 서울 역사박물관 (『문화재보존연구』8, 도 2)	 〈篋〉, 조선후기, 높이 14.8, 종묘관리소 (필자촬영)	 〈篋〉, 조선후기, 높이 15.0, 종묘관리소 (필자촬영)	 〈篋〉, 조선후기, 높이 14.5, 종묘관리소 (종묘관리소 제공)

⁴² 보는 굽안쪽에 침선으로 ‘□□□□三年三月日造蓋具 重十三斤十四兩左’이라고 새겨져있다. 궤의 편년유물에도 굽 안쪽에 침선으로 ‘萬曆三十三年三月日造 蓋具八斤十二兩’이라고 새겨진 유물이 있고, 보의 명문 3년 앞에 수리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萬曆三十’이 수리되어 지워진 것으로 보인다.

궤의 기형은 사방이 둥근 형태에 높은 굽을 가지며, 뚜껑이 있는 형태이다. 궤의 동체에는 사방에 여의두문이 둘러져있으며, 좌우측에는 용의 입에서 손잡이가 나오는 용두형 손잡이가 부착되었고, 굽에는 괴수문이 시문되었다. 궤의 뚜껑은 동체를 뒤집은 모습과 유사한 형태이며, 상부에는 물결형태의 여의두문이 시문되었고, 뚜껑의 상면에는 수파문이 표현되었다. 동체와 맞물리는 구연부에는 동체와 마찬가지로 여의두문이 표현되었다. 궤의 명문유물은 ‘萬曆三十三年’ 명 유물과 八斤十二兩, 八斤十兩 등의 무게명문이 있는 유물, 奉常寺, 임진조 유물이 있다.

보와 궤를 제작기법과 형태, 문양 등을 통해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제기도설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1-1유형은 『국조오례의서례』와 유사한 기형으로 종묘광장 출토유물과 만력33년, 무게 명문이 있는 유물이 이 유형에 속한다. 1-2유형은 1-1유형에 비해 형식화가 많이 진행되어 세부표현이 많이 단순화 되었으며, 파수의 접합기법이 1-1유형은 용점으로 된 반면 1-2유형은 리베팅으로 이루어졌다. 임진조 명문이 있는 유물들이 1-2유형에 속한다. 2유형은 『대명집례』와 유사한 기형으로 1-1유형과 비교했을 때 동체의 크기가 더 커졌으며 기벽도 많이 두꺼워졌다. 또한 파수의 접합기법도 1-2유형과 마찬가지로 리베팅으로 이루어졌다. 시문된 문양도 많이 달라졌는데 보의 경우 동체부 수파문이 시문된 곳에 원권대에 뇌문이 시문되었고, 굽에도 연판문 대신 초화문이 시문되었다. 궤의 경우 여의두문의 형상이 구름문처럼 변화하였으며, 굽의 괴수문도 양각된 형상에서 평면적인 형상으로 변화하였다. 2-2유형은 2-1유형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문양이 시문되지 않았다. 2-2유형의 보 바닥면에는 갑진조 명문이 새겨져 있다(표 9).

2) 주기

작의 기형은 삼쪽에 구연 부분이 船形으로 양쪽에 竹節形의 기둥을 세우고 기둥 아래 부분에 용머리 장식이 부착되었고 몸체에는 뇌문이 시문된 형태이다.

작의 명문유물은 임진조, 癸巳造, 갑진조, 飲福甲辰造의 간지명 유물과 康, 獻, 章 등의 陵號銘, 一斤九兩의 무게명문이 있으며, 갑진조 유물은 그 형태가 다른 2가지 형식이 있다.

제기도설과 동일하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1-1유형은 작의 기본적인 형태에 동체의 문양이 뇌문과 여의두문 소용돌이 문양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청진동 출토 유물과 능호명 유물이 속한다. 1-2유형은 1-1유형보다는 형식화가 이루어진 유형으로 간지명 유물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2-1유형은 『대명집례』의 도설과 동일한 문양과 형태를

지닌 것으로 뇌문의 바탕에 괴수문이 시문된 것이다. 제기도설의 분석에서 『대명집례』의 영향을 받은 도설을 없었지만 실제 제기에서 『대명집례』의 도설과 일치하는 기형이 나타나 주목된다. 2-2유형은 2-1유형과 형태가 동일하지만 문양이 시문되지 않은 유형으로 갑진조 유물이 포함된다(표 10).

이의 기형은 그릇에 굽이 달린 형태로 계이, 조이, 가이, 황이가 있는데 그 기형은 동일하지만 기형의 표면에 문양이 닭과 새, 벼, 눈으로 각각 차이가 있다. 이의 유형은 손잡이가 달리지 않은 기본형태가 1유형이고 용의 입에서 나오는 손잡이에 고리가 달리고 받침대인 주가 있는 기형이 2유형이다. 종묘광장 출토 유물은 1유형에 속하며, 새의 형태가 봉황의 모습을 하고 있어 『제기도감의궤』 도설과 유사하다. 이의 명문유물은 임진조만 존재하며 2유형에 속한다(표 11).

희준과 상준의 기형은 소와 코끼리 형태에 등을 파고 뚜껑을 달아놓은 형태이다. 제기도설 상에서 1유형과 2유형은 차이가 없이 동일한 형태이다. 그런데 현존하는 제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은 등에 뚜껑을 단 형태이고, 2유형 등에 항아리를 얹은 기형이다.

표 10 작의 유형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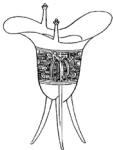















	1유형			2유형		
	국조오례의 서례	1-1유형	1-2유형	대명집례 종묘	2-1유형	2-2유형
작		 〈爵〉, 조선후기, 높이 21.3, 종묘관리소 (필자촬영)	 〈爵〉, 조선후기, 높이 21.4, 종묘관리소 (필자촬영)  1-2유형 작 바닥의 명문, 조선후기, 종묘관리소 (필자촬영)		 〈爵〉, 조선후기, 높이 20.7, 종묘관리소 (필자촬영)	 〈爵〉, 조선후기, 높이 23.0, 종묘관리소 (필자촬영)  2-2유형 작 바닥의 명문, 조선후기, 종묘관리소 (필자촬영)

표 11 조이, 가이의 유형분류

	1유형			2유형		
	유물	유물	제기도감의궤	유물	대명집례 종묘	제기도
조이	 〈鳥彝〉, 15세기, 높이18.6, 서울역사 박물관 (『문화재보존 연구』8, 도 15)	 〈鳥彝〉, 조선후기, 높이23.4, 종묘관리소 (종묘관리소 제공)		 〈鳥彝, 舟〉, 조선후기, 조이 높이21.0, 조이주 높이 13.3, 국립고궁 박물관 (『종묘대제 문물』, 도 15)	 대명집례 종묘	
가이		 〈罍彝〉, 조선후기, 높이25.8, 개인 (『운현궁을 거닐다』, p. 214)		 〈罍彝, 舟〉, 조선후기, 가이 높이20.8, 가이주 높이 12.8, 국립고궁 박물관 (『종묘대제 문물』, 도 16)		

표 12 상준, 희준의 유형분류

	1유형		2유형			
	국조오례의 서례	유물	대명집례 종묘	황조예기도식 태묘	제기도	유물
상준		 〈象尊〉, 조선후기, 높이16.5, 국립 고궁박물관 (『종묘대제문물』, 도 19-2)				 〈象尊〉, 조선후기, 높이38.0, 국립 고궁박물관 (『종묘대제문물』, 도 19-3)
희준		 〈犧尊〉, 조선후기, 높이15.5, 국립 고궁박물관 (『종묘대제문물』, 도 18-2)				 〈犧尊〉, 조선후기, 높이38.0, 국립 고궁박물관 (『종묘대제문물』, 도 18-3)

2유형은 연대미상 <제기도>에만 등장하는 기형인데 『皇朝禮器圖式』의 기형과 『대명집례』의 문양을 절충하여 만든 유형으로 생각된다. 상준과 희준의 명문자료에는 갑진조만 존재하며, 2유형에 속한다(표 12).

산뢰의 기형은 항아리 형태에 양 어깨에 끈을 꼬아 만든 형태의 손잡이가 달려있으며, 손잡이에는 둥근 고리가 끼워져 있다. 산뢰의 문양은 전체가 4등분으로 나뉘어 뇌문, 산문 등이 시문되었다. 산뢰의 명문유물은 능호, 임진조, 갑진조 명문과 종묘광장 출토 유물⁴³이 있다. 현존하는 산뢰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1유형은 시간이 흐를수록 산문양이 약간의 변화를 보이지만 『국조오례의』와 유사한 형태와 문양을 지니며 명문유물로는 능호명 유물이 있다. 1-2유형은 주문양인 산 문양 대신 연판문이 시문되고, 손잡이가 용에 입에서 손잡이가 나오는 용두형 손잡이로 바뀐 기형으로 임진조 유물이 속한다. 2-1유형은 두 가지 형식으로 모두 『대명집례』 문양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2-2유형은 다른 기형보다 항아리의 길이가 높이가 낮아지고 기본적인 문양인 뇌문이 없어지고 동체의 하부에 산문이 시문된 형태로 『대명집례』 사천조의 산뢰와 거의 유사하며, 갑진조 유물이 있다(표 13).

표 13 산뢰의 유형분류

	1유형				2유형		
	국조오례의 서례	1-1유형		1-2유형	2-1유형	대명집례 사천	2-2유형
산뢰		 〈山罍〉, 15세기, 서울역사 박물관 (『문화재보존 연구』8, 도 11)	 〈山罍〉, 조선후기, 높이27.0, 종묘관리소 (필자촬영)	 〈山罍〉, 조선후기, 높이27.6, 국립고궁 박물관 (『종묘대제 문물』, 도 22-4)	 〈山罍〉, 조선후기, 높이28.0, 종묘관리소 (필자촬영)		 〈山罍〉, 조선후기, 높이27.0, 국립고궁 박물관 (『종묘대제 문물』, 도 22-2)
					 〈山罍〉, 조선후기, 높이26.5, 종묘관리소 (종묘관리소 제공)		

⁴³ 산뢰의 굽 부분에 '永二山罍天口八斤五兩'이 새겨져 있다. 영녕전 2실에는 翼祖의 신주가 모셔져 있으며, 문종2년(1452)에 익조의 신주를 영녕전 2실로 조천하였으므로 그 시기를 15세기 중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운점의 기형은 굽이 높은 쟁반 형태에 구름형 날개가 부착된 형태이다. 운점은 다른 제기도설에는 등장하지 않고 『대명집례』 도설에만 나타나지만, 현존 유물에 동일한 것이 있다. 장서각 소장 <제기도>에 당시 실제 사용했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운점의 유형은 1종류 밖에 없으나 2유형에 속한다(표 7).

3) 수기

세의 기형은 대야형태에 높은 굽이 부착되어 있고, 동체 양옆에 괴수문 손잡이가 달려있으며, 그릇의 내부에 수초와 물고기가 장식되어 있다. 현존하는 세의 유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국조오례의서례』와 형태와 문양이 같은 유형이고, 2유형은 대야형태에 굽과 괴수문 손잡이가 없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대명집례』에서 굽이 없는 모습과 유사하다(표 14).

세뢰 기형은 항아리형의 동체가 세부분으로 구획되어 수파문, 뇌문 등이 시문된 형태이다. 현존하는 세뢰의 유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은 『국조오례의서례』와 형태와 문양이 비슷한 유형이고, 2유형은 『대명집례』 도설의 영향으로 뇌문 바탕에 괴수문이 시문된 것이다. 세뢰의 명문유물은 임진조가 있는데 1유형에 속한다(표 14).


표 14 세, 세뢰의 유형분류

	1유형		2유형	
	국조오례의서례	유물	대명집례 종묘	유물
세		 〈洗〉, 조선후기, 높이16.2, 국립고궁박물관 (『종묘대제문물』, 도 25)		 〈洗〉, 조선후기, 높이12.4, 종묘관리소 (필자촬영)
세뢰		 〈洗甕〉, 조선후기, 높이30.5, 국립고궁박물관 (『종묘대제문물』, 도 24)		 〈洗甕〉, 조선후기, 높이29.5, 국립고궁박물관 (『종묘제기』, 도 22)

4) 기타제기

향로의 기형은 鼓腹形 동체에 삼족이 있고 양옆에 손잡이가 달려있으며, 龍頭形 뚜껑이 있는 형태이다. 제기도설에서 초기에 등장하는 향로에는 동체에 식물문 무늬가 시문되어있고, 정조대 『대명집례』의 영향을 받았다는 향로들은 동체의 중앙에 괴수가 부착되어있고 그 양옆으로 卍字雲紋이 시문되었으며, 경우에는 뇌문이 시문되었다. 뚜껑에는 운문 위로 용두가 부착되었다. 향로의 명문자료로는 翼, 順康十斤, 順懷蓋具七斤十兩 등의 능호와 무계명문, 임진조, 갑진조의 간지명문이 있다. 현존하는 향로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1-1유형은 기본적인 기형에 식물문, 寶紋, 수파문 등이 시문되었고, 능호와 무계명문이 있다. 1-2유형은 뇌문이 시문된 것으로 임진조 명문이 있다. 2-1유형은 2가지 형식이 있는데 모두 『대명집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1형식은 만자 뇌문 바탕에 아주 간략한 용문과 보문이 시문된 것이다. 용문의 아래에 연판문이 시문되었고, 삼족의 다리는 괴수의 형태이다. 2형식은 뇌문바탕에 『대명집례』에 나타나는 괴수문이 장식된 형태이다. 2-2유형은 무문에 뚜껑이 용두가 아닌 八卦가 투각된 것으로 『황단의』 도설과 동일하여 주목되며, 갑진조 명문이 있다(표 15). 향합의 기본적인 기형은 제기도설에 무문의 합이지만, 현존하는 향합은 문양이 있으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

표 15 향로, 향합의 유형분류

	1유형			2유형				
	종묘의궤	1-1유형	1-2유형	궁원의	2-1유형	황단의	2-2유형	
향로		 〈香爐〉, 조선후기, 높이 26.5, 종묘관리소 (종묘관리소 제공)	 〈香爐〉, 조선후기, 높이 33.0, 국립고궁박물관 (『중묘대제문물』, 도 34-3)		 〈香爐〉, 조선후기, 높이 32.8, 국립고궁박물관 (『중묘대제문물』, 도 34-2)	 〈香爐〉, 조선후기, 높이 35.6, 국립고궁박물관 (『중묘대제문물』, 도 64)		 〈香爐〉, 조선후기, 높이 25.6, 종묘관리소 (필자촬영)
향합	 	 〈香盒〉, 조선후기, 높이 7.5, 국립고궁박물관 (『중묘대제문물』, 도 35-1)	 〈香盒〉, 조선후기, 높이 11.5, 국립고궁박물관 (『중묘대제문물』, 도 35-2)					

다. 1유형은 향합의 뚜껑과 동체의 구연부에 뇌문이 음각되어 있으며, 임진조 명문이 있다. 2유형은 동체는 무문이고 뚜껑 윗면에 『대명집례』에 영향을 받은 당초무늬가 시문되었고 가운데 보주형 꼭지가 있는 것이다(표 15).

위의 분석을 통해 현존유물은 제기도설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1유형은 『국조오례의서례』의 도설과 유사한 기형과 문양을 나타내는 유형과, 나아가 형식화를 이루는 유형이 나타난다. 특히 임진조 제기에서 형식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2유형은 『대명집례』 도설과 유사한 형태와 문양이 나타나는 기형과 『대명집례』 도설에 나타나는 기형이지만 그 형태나 문양이 변형된 형태 그리고 『대명집례』 도설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대명집례』 도설의 문양을 따서 만든 형태의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종묘 간지명 제기의 편년

앞장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종묘제기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임진조, 계사조, 갑진조 유물의 편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임진조 명문이 새겨진 기형에는 보, 궤, 찬, 작, 점, 착준, 호준, 산뢰, 용작, 세뢰, 향로, 축대, 모혈반, 계이, 조이가 있다. 산뢰의 문양은 1유형의 영향으로 뇌문과 변형된 산문이 등장하지만 손잡이의 형태는 『대명집례』의 영향을 받은 계이의 손잡이와 동일하다(표 13). 계이와 조이는 『대명집례』의 도설과 일치하므로(표 11) 임진조 기형들은 대체로 『국조오례의서례』 도설이 형식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일부 기형에서 『대명집례』 도설의 영향을 받은 기형도 일부 나타난다. 이를 통해 기형별로 각각 다른 유형을 차용하여 제기를 제작했으며, 임진조 시기에 두 유형이 모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계사조 명문이 새겨진 기형은 작이 유일한데 그 형태와 문양에서 임진조 작과 1-2유형 갑진조 작과 일치하여 『국조오례의서례』 도설이 형식화된 유형에 속한다(표 10).

갑진조 명문이 새겨진 기형은 보, 작, 상준, 희준, 산뢰, 향로 등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무문인 것인 많으며 형태상으로는 『대명집례』 도설에 영향을 받은 것이 많다. 갑진조 보는 형태상으로 『대명집례』 도설과 유사하지만, 문양이 시문되어 있지 않았다(표 9). 갑진조 작은 2개의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임진조 작과 그 형태와 문양이 같고, 다른 갑진조 작은 그 형태가 2유형과 동일하지만 문양이 시문되지 않았다. 갑진조 작의 형태로 볼 때 1유형이 형식화된 시기에 2유형도 함께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10). 상준과 희준은 기존의 두 유형의 도설과는 다른 형태로 제작되어 주목된다. 소와 코끼리의 형태에 향아리가 없어진 형태로 도설상으로 볼 때 청대 예서인 『황조예기도식』의 형태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상



도 4 〈爵〉, 조선후기, 높이 20.7,
삼척시립박물관
(삼척시립박물관 제공)



도 5 〈山罍〉, 조선후기, 높이 26.5,
삼척시립박물관
(삼척시립박물관 제공)



도 6 〈香爐〉, 조선후기, 높이 32.8,
삼척시립박물관
(삼척시립박물관 제공)

준의 항아리에 새겨진 문양이 대명집례 유형에 나타나는 문양이 새겨져 있어 형태는 『황조 예기도식』의 영향을 받고, 문양은 대명집례의 유형에 영향을 받은 2유형의 변형된 형태로 생각된다(표 12). 산퇴는 기존의 문양과 달리 뇌문이 시문되지 않고 산문만 시문되었는데 이는 『대명집례』 사천조의 도설과 일치한다(표 13). 갑진조가 새겨진 향로는 기존의 뚜껑이 용형태가 아닌 무문에 팔괘가 투각되어 있어 왕실제사에 사용된 제기는 아니고 왕실제사 보다 급이 낮은 제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표 15).

이상의 간지명 유물의 분석을 통해 세 간지의 시기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두 유형이 함께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지명 제기의 제작시기는 정조16년(1792) 능원묘제기에 능호 한자씩과 조성한 간지를 적으라는 기사를 통해⁴⁴ 1792년 이후 임진년은 1832·1892년이고, 계사년은 1833·1893년이고, 갑진년은 1844·1904년이다. 그런데 1899년에 건립된 준경묘에서 사용된 삼척시립박물관에 소장의 작, 산퇴, 향로와 비교한 결과 모두 2-1유형에 속하는 제기와 일치하여 1899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표 10, 13, 15, 도4, 5, 6). 따라서 간지명의 제작시기도 이와 비슷한 시기인 1892년, 1893년, 1904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IV. 제기의 양식변천과 그 배경

이상의 제기도설과 종묘제기 분석을 통해 조선왕실 금속제기의 양식을 다음과 같이

⁴⁴ 각주 27) 참조.

5기로 구분하였다.

조선전기는 태종-세종대 중국의 고제연구를 바탕으로 『세종실록』 「오례」가 편찬되어 제기의 제도가 성립된 시기를 1기로, 성종대 『국조오례의』의 편찬으로 제기제도가 확립된 시기를 2기로 나누었다. 1기는 제기도설 상에서 희준과 상준은 발형 제기를 사용하였고, 국초에 고려의 제도를 따르던 제기를 중국의 고제를 연구하여 조선만의 미감으로 취사선택되어 제기제도가 성립되었다. 1기의 유물로는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종묘광장 출토 유물이 있다. 2기는 상준과 희준이 현재의 형태인 상형으로 변화하였고, 이때 확립된 제기제도는 이후 조선후기까지 강하게 영향을 주어 조선시대 제기에 전범을 만들었다. 3기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소실된 제기를 재정비하여, 조선전기와 같은 양식으로 새로 제작되지만 기형에서 다양화를 이룬 시기이다. 그 원인에는 16세기 『주자가례』의 확산과 예학의 심화에 있었다. 또한 숙종대 『대명집례』의 중간과 대보단 제사의 신설을 통해 『대명집례』 제기도설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이지만 아직도 1유형 제기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만력33년명 보와 궤를 통해 1유형의 제기가 꾸준히 제작되었으며 그 세부표현이 도설과 일치하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4기는 영·정조대 이후로 2유형인 『대명집례』 제기도설의 영향이 뚜렷히 나타나는 시기이다. 지금까지 시기와 비교하여 가장 뚜렷한 제기의 변천을 보이는 시기이다. 영조대 대보단을 중수하면서 제작된 『황단의』와 『황단증수의』 제기도설에서 『대명집례』 사천제기를 참고하여 2유형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후 정조대 제작된 여러 의궤와 예서들에서 보, 궤, 향로, 향합, 이, 반 등의 기명을 중심으로 『대명집례』와 유사한 도설이 등장한다. 그러나 나머지 기형에서는 아직도 1유형의 제기가 나타난다. 현존하는 유물에서도 기명의 형태와 세부표현이 『대명집례』의 도설과 유사한 기형들이 나타난다. 5기는 고종대 이후로 간지명 기형과 거의 모든 기종에서 『대명집례』 제기도설의 영향을 받은 제기가 등장하고, 2유형이 변형된 형태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보수성이 강한 제기의 특징으로 인해 2유형의 제기가 등장하였지만 1유형의 제기도 함께 제작되었다. 이 때 제작된 1유형 제기는 형식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2유형의 제기도 4기와 달리 손잡이나 받침대, 문양 등의 장식이 많아지고 화려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대한제국기 이후 황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의 위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나타난 변화라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양식변천이 생긴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조선초기에는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에 나타나는 제기의 형식은 북송대 제작된 『예서』와 남송대 제작된 『소희주현석전의도』와 같은 도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 예서의 영향을 받은 것은 비단 조선초기의 도설뿐만 아니라 고려시

대의 제기도 북송대 『三禮圖』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고려시대 도자제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에 사전을 정비함에 있어 동시기 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당시 명의 내부적인 상황이 조선에 큰 영향을 줄 만큼 안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명의 예제는 황제국의 예제였기 때문에 그대로 참용할 수 없었고, 실질적으로 조선이 받아들일만한 예제는 명 지방 주현의 예제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서는 이것이 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를 대체할 만한 것이 송대의 예제를 비롯한 고제들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의 사상적 배경에 있다. 그들은 주희의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신진사대부 세력들로, 그들의 사상을 따르는 한편 그들 스스로 얻은 유교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전시기의 갖가지 예전에서 참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었고, 필요한 것만을 수용하여 조선전기 조선만의 사전을 편찬하였다.⁴⁵

둘째, 제기도설이나 실제 유물의 변화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대명집례』의 참용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기가 가진 보수성으로 인하여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도 조선에 필요한 것들만을 취사선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은 양난이후 조선의 지배계층이 가지고 있던 사상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양난이후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일어나 중원을 지배하게 되었다. 조선은 외적으로 청에 굴복하였으나, 내적으로는 명의 문화와 제도를 이어 나갔다. 명의 문화를 이었다는 자부심은 숙종대 대보단을 건립하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영조대에는 『속대전』, 『국조속오례의』 등의 편찬과 대보단의 증수, 儀禮의 親行을 통해 古禮를 회복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대보단에 증수에 관한 의주를 기록한 『황단의』와 『황단증수의』에서 『대명집례』사천제기의 영향을 받은 제기도설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역시 우리나라 사전의 제기는 『국조오례의서례』의 영향을 받은 제기들이 제작되었다. 정조대에 제작된 도설에서 『대명집례』를 참용한 제기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정조대는 영조의 고려회복 의지가 이어져 예제정비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궁원의』, 『사직서의궐』, 『경모궁의궐』, 『춘관통고』의 제기도설 중에서 簠, 簋, 香爐, 香盒, 匣, 匣槃, 등의 일부 기종에서 『대명집례』의 도설을 참용하였다. 그러나 이외의 기종에서는 여전히 『국조오례의서례』의 영향을 받은 제기들이 제작되어 받아들여는데 있어 조선에서 필요한 것들만을 취사선택한 것으로 조선만의 주체성이 드러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모궁의궐』와 『궁원의』(重刊本)에서는 이전시기와는 볼 수 없는 제기도설의 화면 구성상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두 책은 정조가 자신의 친아버지인 사도세자 추승과 의례의 정비

⁴⁵ 하은미, 앞의 논문(2010), pp.93-94.

를 통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명 황실 제사에만 사용하던 『대명집례』 도식에 근거한 제기를 사용하여 그 권위를 높이려 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또한 왕권강화와 함께 당시 선진문물이었던 청대 인쇄기술과 책의 구성 방식을 수용하여 개혁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생각된다. 고종대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황제국을 선포하였다. 황제국에 걸맞게 제기도 더욱 위엄있게 만들기 위해 정조대 보다 『대명집례』의 도설과 유사한 기형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며, 제기도설과 부합하지 않고 변형된 형태를 보이는 제기도 다수 등장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결국 제기가 본래 가지는 형태와 문양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제기를 만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지금까지 제기의 변화 중 가장 큰 변화인 『대명집례』를 참용한 원인은 영·정조대 그리고 고종대 왕권강화를 위해 의례가 이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전기부터 조선후기까지의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헌과 의궤, 도설을 비교·분석하고, 종묘관리소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종묘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선왕실 금속제기의 양식과 편년을 추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조선왕실 금속제기의 성격 및 의의를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왕실 금속제기는 보수적이지만 당시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그 변화의 원인은 왕권강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특히 정조대 『대명집례』도설의 참용은 친부인 사도세자의 추숭을 통하여 왕권을 강화하는데 제기를 이용하였고, 당시 발달된 청대의 선진문물 제도를 받아들여 개혁의지를 보인 것이라 추정된다.

둘째, 제기의 제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지만 단순히 중국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예서의 기형과 문양의 취사선택을 통하여 조선만의 미감을 드러내었다.

셋째,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조선왕실 금속제기를 금속공예의 새로운 한 장르로서 재발견하고, 왕실 금속제기의 제작기법과 기형, 문양 등의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왕실 미술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넷째, 조선왕실 금속제기는 전 시기를 아울러 제작된 공예품으로 다른 조선시대 미술

품과 형태나 문양 등의 비교가 가능하여 조선시대 미술사를 더욱 풍부하게 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조선왕실 금속제기외에도 다른 오례에 속한 왕실 공예품의 연구를 과제로 삼
고 지속적인 연구를 기약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주제어(Key Words)_朝鮮王室(Joseon court), 金屬祭器(metal ritual vessels), 祭器圖說(illustrations of ritual
vessels), 宗廟(Jongmyo Shrine), 國朝五禮儀(The Five Rites of State (Gukjo Oryeui)), 大明集禮(The Collected
Rites of Great Ming (Daming Jili))

■ 투고일 2012년 5월 23일 | 심사개시일 2012년 9월 11일 |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16일 ■

참고문헌

1. 史料

『周禮』, 『禮記』, 『紹熙州縣釋奠儀圖』, 『三禮圖』, 『禮書』, 『史林廣記』, 『聖宋頒樂圖』, 『大明集禮』, 『大明會典』, 『皇朝禮器圖式』,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世宗實錄』, 『五禮儀』, 『祭器及饌實錄』, 『國朝五禮儀序例』, 『社稷宗廟文廟祭器都監儀軌』, 『祭器都監儀軌』, 『祭器樂器都監儀軌』, 『宗廟儀軌』, 『皇壇儀』, 『皇壇增修儀』, 『國朝喪禮補編』, 『親蠶儀軌』, 『宮園儀』, 『社稷暑儀軌』, 『景慕宮儀軌』, 『春官通考』, 『尊周彙編』, 『太常志』, 『大韓禮典』

2. 單行本

김해영, 『朝鮮初期 祭祀典禮 研究』, 집문당, 2003.
문화재 관리국, 『종묘제기』, 문화재 관리국, 1976.
안귀숙,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화산문화, 2002.
윤방언, 『조선왕조 종묘와 제례』, 문화재청, 2002.
이명희, 『궁중유물(돌)』, 대원사, 1995.6.
정옥자, 『조선시대 문화사. 상: 문물의 정비와 왕실문화』, 일지사, 2007.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국가의례와 그 기록』, 일지사, 2005.
한형주, 『朝鮮初期 國家祭禮 研究』, 일조각, 2002.
황경환, 『조선왕조의 제사』, 문화재관리국, 1967 .

3. 圖錄

서울역사박물관, 『아스팔트 아래 운중가』, 2012. 6.
국립고궁박물관 외, 『조선 왕실의 보물』, 보림, 2008. 4.
국립고궁박물관 편, 『국립고궁박물관 개관도록』, 놀와, 2005.
국립고궁박물관 편,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안내도록』, 국립고궁박물관, 2007.
궁중유물전시관 편, 『종묘대제문물』, 궁중유물전시관, 2004.
부산시립박물관, 『궁중유물도록』, 서면문화사, 1987.
서울역사박물관 편, 『(특별전)운현궁을 거닐다 : 유물집·사진집』, 서울역사박물관, 2009.
장경희, 『(궁중유물전시관 소장)왕궁의 보물』, 궁중유물전시관, 예맥출판사, 200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朝鮮王朝遺物圖錄: 宮中遺物展示館 所藏』,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3.
호림박물관, 『분청사기제기』, 호림박물관, 2010.

4. 論文

〈國文〉

- 김문식, 「18세기 국가전례의 변화 -『國朝五禮通編』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원 학술대회』, 2006.
- _____, 「숙종이 중간한 《대명집례》」, 『문헌과해석』28, 문헌과해석사, 2004.가을.
- _____, 「장지연이 편찬한 『대한예전』」, 『문헌과해석』35, 문헌과해석사, 2006.여름.
- _____, 「조선시대 국가전례서의 편찬 양상」, 『장서각』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4.
- 김세은, 「高宗初期(1863~1873) 國家儀禮 시행의 의미」, 『조선시대사학보』31, 조선시대사학회, 2004.
- 김중임, 「朝鮮時代 王室 金屬祭器 研究-宗廟祭器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8.
- 김지영, 「18세기 후반 國家典禮의 정비와 《春官通考》」, 『韓國學報』30-1, 일지사, 2004.
- 김호, 「英祖의 大報壇 증수와 明 三皇의 享社」, 『韓國文化』32, 2003.12.
- 박부주, 「조선시대 국가 祭禮와 尊·罍의 사용」, 『조선시대사학보』58, 조선시대사학회, 2011.9.
- 박은순, 「조선후기 의궤의 판화도식」, 『국학연구』6, 한국국학진흥원, 2005.6.
- 사공영애, 「朝鮮 王室 香爐 研究 -古銅器形 香爐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8.
- 안성희, 「朝鮮時代 陶瓷祭器 研究」,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8 .
- _____, 「16-17세기 朝鮮 白磁祭器의 새로운 경향」, 『미술사학』2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8.8.
- 장경희, 「19世紀『進饌儀軌』의 工藝史的 研究 :1887年『丁亥 進饌儀軌』를 중심으로」, 『考古美術史論』5,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1997.
- _____, 「조선 시조왕릉의 정자각 내부 의물 연구」, 『한국공예논총』15-2호, 한국공예학회, 2012.여름.
- _____, 「경기전의 의식구 고찰」, 『왕의 초상』, 국립전주박물관, 2005.
- _____, 「正祖代 景慕宮의 왕실공예품 연구: 종묘의 儀仗·儀物·祭器와 비교하여」, 『한국공예논총』12권 2호, 한국공예학회, 2009.여름.
- _____, 「朝鮮王朝 王室嘉禮用 工藝品 研究」, 홍대 미술사학과 박사, 1999.2.
- _____, 「조선후기 王室祭器 鑄成 鑄器匠 연구」11권 2호, 한국공예학회, 2008.여름.
- _____, 「조선후기 종묘제기와 청대 태묘제기의 비교」, 『천년의 이야기: 호롱불 아래, 작가와의 만남』, 문화재청 종묘관리소, 2010.
- _____, 「종묘 소장 王室祭器의 銘文 분석: 제작연대와 사용처의 고증을 중심으로」, 『도시 역사문화』8, 서울역사박물관, 2009.
- _____, 「종묘 의장의물의 종별과 조성과정」, 『천년의 이야기: 호롱불 아래, 작가와의 만남』, 문화재청 종묘관리소, 2010.
- _____, 「韓國 佛教儀式法具의 美術史的 意味 :王室 工藝品과의 比較를 통하여」, 『佛教美術』13, 동국대박물관, 1996.2.

- 장성욱, 「高麗時代 陶磁祭器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2.
- 장은혜, 박용수, 「종묘 출토 제기의 보존처리」, 『문화재보존연구』8, 서울역사박물관, 2011.
- 정경희, 「조선후기 궁원제의 성립과 변천」, 『서울학연구』23, 2004.
- 정소라, 「조선후기 도자제기 연구 : 충효동출토 분청제기를 중심으로」,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1997.2
- _____, 「조선후기 길례용 분청제기 연구-충효동요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223, 1999.9
- 조계영, 「朝鮮後期 《宮園儀》의 刊印과 粧幀」, 『서지학연구』35집, 서지학회, 2006.12.
- 조시내, 「大韓帝國期 宮中 宴享用 家具 研究」,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8.
- 주경미, 「조선 전반기 금속공예의 대중교섭」, 『조선 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2006.
- 최순권, 「조선시대 彝尊에 대한 고찰」, 『생활문물연구』14, 국립민속박물관, 2004.9.
- _____, 「宗廟祭器考」, 『종묘대제문물』, 궁중유물전시관, 2004.
- 하은미, 「宗廟祭器와 朝鮮時代 祭器圖說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술사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2.

국문초록

본 논문은 朝鮮王朝의 대표적인 儀禮容器였던 王室 金屬祭器에 대한 研究로 현존하는 宗廟祭器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아 금속제기의 의례기로서의 성격과 제작기법, 기형 및 문양분석을 통해 금속제기가 시기에 따라 어떤 양상을 띠며 변화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조선시대 금속제기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조선시대 금속제기의 기형과 문양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종 예서와 의례의 祭器圖說과 현존유물을 분석한 결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1유형은 『국조오례의서례』의 도설과 유사한 기형과 문양을 나타내는 유형이고, 2유형은 『대명집례』도설과 유사한 형태와 문양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상의 제기도설과 현존유물의 분석을 통해 조선왕실 금속제기의 양식을 다음과 같이 5기로 구분하였다. 1기는 태종-세종대 중국의 고제연구를 바탕으로 『세종실록』 「오례」가 편찬되어 제기의 제도가 성립된 시기로, 국초에 고려의 제도를 따르던 제기를 중국의 고제를 연구하여 조선만의 미감으로 취사선택되어 제기제도가 성립된 시기이다. 2기는 성종대 『국조오례의의』 편찬으로 제기제도가 확립된 시기이며, 이후 조선후기까지 강하게 영향을 주어 조선시대 제기에 전범을 만들었다. 3기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소실된 제기를 재정비하여, 조선전기과 같은 양식으로 새로 제작되지만 기형에서 다양화를 이룬 시기이다. 또한 숙종대 『대명집례』의 중간과 대보단 제사의 신설을 통해 『대명집례』제기도설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이지만 아직도 1유형 제기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4기는 영·정조대이후로 2유형의 제기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5기는 고종대이후로 1유형이 형식화된 간지명 기형과 거의 모든 기종에서 2유형이 등장한다. 특히 2유형이 변형된 형태도 등장하는데 4기와 달리 장식이 많아지고 화려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대한제국기 이후 황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의 위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나타난 변화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왕실 금속제기에 관한 연구 성과들은 실제 유물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왕실 제기의 특성과, 전례에 따라 잘 변화하지 않는 왕실미술의 보수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선전시기의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헌과 의례, 도설을 비교·분석하고, 종묘관리소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종묘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는 조선왕실 제기가 중국의 예서를 취사선택하여 조선만의 미감을 드러내었음을 알게 되었고, 둘째는 조선왕실 금속제기가 보수적이지만 당시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그 변화의 원인에는 왕권강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 연구를 통해 조선왕실 금속제기를 금속공예의 새로운 한 장르로서 재발견하고, 왕실 금속제기의 제작기법과 기형, 문양 등의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왕실 미술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제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조선왕실 금속제기외에도 다른 오례에 속한 왕실 공예품의 연구를 통하여 조선왕실 미술이 더욱 풍성해 지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A Study of Metal Ritual Vessels of the Joseon Court

-Focused on the Ritual Vessels at the Jongmyo Shrine-

Kim Jong-im *

This thesis aims at a better understanding of metal ritual vessels of the Joseon court via having a closer look at the changes they had by period and analyzing their characteristic features, techniques used for the production, vessel shapes and designs decorating them. The subjects chosen for the study are vessels used at the royal ancestral memorial rites held seasonally at the Jongmyo Shrine during the Joseon Period (1392-1910).

The ritual vessels of the Joseon court a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by their shapes and decorative designs on the basis of old ritual literature and court protocols as well as remaining relics. Vessels of the first category feature the shapes and designs similar to those introduced in the Introductory Illustrations of The Five Rites of State (國朝五禮儀序例) while the vessels of the second category feature similarity with the items illustrated in The Collected Rites of Great Ming (大明集禮).

The analysis led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ritual vessels into five phases. The first phase is marked by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regarding the use of ritual vessels according to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世宗實錄) and The Five Rites (五禮) compiled on the basis of the studies conducted on ancient Chinese examples during the reign of two kings Taejong (r. 1400-1418) and Sejong (r. 1418-1450). The second phase saw the publication of The Five Rites of State (國朝五禮儀)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1469-1494) and the

* Hoamsaji Museum, Curator

creation of a code on the use of ritual vessels which would continue to be maintained until the late Joseon period. The third phase is characterized by the restorat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vessels destroyed during the war (Imjinwaeran) that took seven years following the 1592 Japanese Invasion of Korea while the fourth by the appearance of the second-generation vessels follow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1724-1776) and King Jeongjo (1776-1800). Finally, an introduction of more stylized first-generation vessels with Ganji inscriptions and a new set of ritual vessels marks the fifth phase that came after the reign of King Gojong (1863-1907). It is also during this last phase that there appeared variations of the traditional ritual vessels largely because the Korean Empire launched in 1897 required more dignity and majesty.